

호락논쟁(湖洛論爭)은 18세기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조선 성리학계 내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논쟁으로, 당시 ①**학계**의 주류를 점한 노론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②**그들은** 주로 충청도와 한양을 기반으로 하였는데, 호서 지방인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학파를 호학 또는 호론이라 하였고, 한양을 기반으로 한 학파를 낙학 또는 낙론이라 하였다. 18세기는 조선의 학문과 국제 정세가 크게 바뀌어 가는 시점이었다. 낙론 학자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고, 호론 학자들은 ③**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 호락논쟁은 ④**송시열의 학맥을 이은 권상하의 두 제자 한원진과 이간**에 의해 점화되었다.

호락논쟁의 핵심은 ⑤**인성(人性)**과 ⑥**물성(物性)**이 동일한지의 여부, 즉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의 문제에 있었다. 이는 오상(五常)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연결되었는데, 오상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으로서 이는 윤리적인 덕성인 동시에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성(性)에 해당한다. 호론에서는 인성과 물성이 같지 않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인간은 오상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동물이나 식물은 오상을 온전히 다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반대로 낙론에서는 인간이나 동물이 모두 인의예지신의 오상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⑦**인간과 동물의 성(性)이 같지 않다**는 이론(異論)은 당연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동물에게 오상과 같은 윤리적 덕성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혹 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인간과 동일한 수준에서 오상을 갖추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⑧**하지만 성(性)에 대한 성리학의 원론적인 정의에 입각한다면 동론(同論), 즉 ⑨인간과 동물의 성(性)이 같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 성리학에서는 성(性)을 우주와 만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궁극적인 근거가 되는 원리인 이(理)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절대적인 존재인 이(理)에 해당하는 성(性)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두 ⑩**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론과 동론 간의 논쟁은 ⑪**어느 한쪽으로 귀결되지 못한 채** 경서 해석과 관련된 관념적 논쟁으로 심화되었다.

1. ①이 가리키는 대상을 서술하세요.

--

2. ②가 가리키는 대상을 서술하시고, 그 대상을 분류하세요.

대상	
분류	

3. 다음은 ③에 들어갈 수 있는 말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	비해
------------------------	----

4. ④를 통해 알 수 있는 송시열, 권상하, 한원진, 이간의 관계를 서술하세요.

--

5. 문맥을 고려해 ⑤와 ⑥의 의미를 서술하세요.

⑤	
⑥	

6. ⑦과 ⑨가 각각 누구의 주장인지 서술하세요.

⑦	
⑨	

7. 글쓴이가 ⑧과 같이 서술한 이유를 서술하세요.

--

8. ⑩의 의미를 서술하세요.

--

9. ⑪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서술하세요.

--